

제3대 연구원장 鄭鍾煥 前철도청장 초빙

건설·교통·관광 전문가, 충남발전 촉진 기대

제3대 충남발전연구원장에 정종환(鄭鍾煥) 前철도청장(53)이 초빙됐다. 신임 정원장은 충남 청양출신으로 청양농고·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 행정관료로 일해왔다. 교통부에 근무하면서 총무과장·공보관을 거쳐 항공국장·관광국장 등을 역임 했다.

건설교통부 시절에는 국토계획국장·기획관리실장·수송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친 건설교통분야의 베테랑으로 손꼽힌다. 지난 1998년 3월부터 2001년 4월에는 대전 3청사내 철도청장을 지내 지역민들에게 낯설지 않다. 전문행정관료 답지 않게 기획력과 독심을 함께 소유한 관료로 평가받기도 한다.

21C 중부권과 서해안시대를 맞아 충남지역 개발의 그림을 그리는데 책임자로 꼽히다가 이번 충남발원의 책임자로 초빙되어 앞으로 큰 역할이 기대된다.

철도청장시절 '내부고객의 만족 없이는 외부고객을 만족 시킬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 「내부고객 만족 100대 과제」를 제정한 후 적극 추진 철도경영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업적으로 '고객만족 경영대상(大賞)' '한국관광 대상(大賞)'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MBC-TV 「성공시대」에 출연하기도 했다.

관료시절 틈틈히 학업에 열중해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원 경제학석사, 순천향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를 수여 받았다.

취미는 독서와 스포츠관람. 부인 조정자여사와 3남을 두었다.



연구실장에 김정연 박사 임명

충남발원은 공석중인 연구실장에 김정연(金正淵) 본원 산업경제 연구부장(45)을 승진 임명했다. 신임 김실장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석사를 취득한 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공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지난 85년 부터 10년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역임한 뒤 지난 96년 부터 최근까지 본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을 재직했었다.

충발연 기구 개편

충발연은 지난 1월 28일자로 연구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면 연구실장내에 기획조정팀과 정보자료팀, 산업디자인팀을 두어 연구원내의 기획정보 기능을 강화했다. 자치정책연구부와 개발환경연구부는 폐지되고 지역개발연구부와 환경연구부를 신설했다. 기구 개편과 아울러 연구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지역개발연구부장에 송두범박사, 산업개발연구부장에 한무호박사, 기획정보팀장에 이인배박사, 산업디자인 팀장에 권영현 연구위원이 각각 맡게 되었다.



송두범 부장



한무호 부장



이인배 팀장



권영현 팀장

「내포를 아시나요」 팸플릿 발행

충남발전연구원은 내포지역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내포를 아시나요」란 팸플릿을 2001년 11월 발행해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내포지역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제작한 이 팸플릿은 서해안시대를 맞아 5천부를 제작 충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에 무상 배포했다.

특히 이 팸플릿은 철도청의 협조를 얻어 새마을호(특실) 열차내에 3천부를 배포해 내포지역 홍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이 팸플릿에는 내포지역 관광소개는 물론 내포의 인물·민속·맛과 멋, 온천 등 내포지역 모든 것을 소개하고 있으며 전면 칼라로 제작돼 관광 안내 책자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매품. 구입문의 (042) 841-9454

節齋 金宗瑞 장군 학술 세미나

정구복 교수 등 3명의 전문가 주제 발표

조선 세종조에 6진을 개척한 장군으로 널리 알려진 절제 김종서선생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2001년 11월 22일(목) 오전9시30분 공주시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공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잘못 알려지고 역사속에 감춰진 김종서선생에 대한 사계의 전문가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구복교수(한국정신문화원)는 “절제 김종서의 생애와 업적” 백원철교수(공주대)는 “절제 김종서의 충절” 임선빈부장(충청학연구부)은 “절제 김종서와 공주”에 대한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김종서는 6진을 개척한 장군뿐만아니라 문과를 통해 관직생활을 시작해 좌의정까지 오른 문무겸전의 인물이라는 사실에 집중 조명 학계의 큰 관심을 얻었다.

아울러 「고려사」편찬을 주도한 역사가이며, 조선왕조 5백년 “충의의 상징”이라고 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김종서선생이 공주에서 태어나 공주에서 생을 마감한 “공주의 영원한 인물”이라는 데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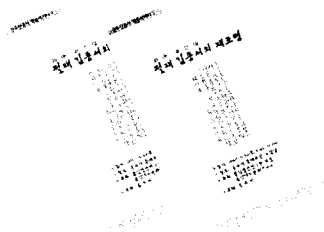
이번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이해준소장(충남역사문화연구소)은 “절제선생은 조선 초기 거목으로 공주 출신으로는 가장 큰 인물이었으나 역사적인 문제로 참된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뒤늦게라도 절제선생의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이같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세미나 요지 〉

절제 김종서의 생애와 업적

(정구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절제는 세종의 뜻에 따라 국경을 두만강까지 확보하는 등 우리 영토를 넓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어린 단종의 왕위를 지켜주려다가 수양대군의 철퇴를 맞고 쓰러진 사림정신의 표상이었다. 또한 그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폈으며 문화적으로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이복을 세우는데



헌신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편찬했는가하면 세종실록도 편찬했다. 그가 배향된 함경도 중정부 충렬사는 백성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세워졌고 사액을 요청했으나 내려지지는 않았다.

절제는 왕조에 의한 공로보다는 국가의 영역을 넓히고 백성의 질고를 풀어주기 위해 애쓴 관료였다. 이같은 공로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편찬한 문화적 공로와 함께 높이 평가돼야 한다. 그가 백성을 위하여 빈민을 구제한 봉공멸사의 정신은 오늘날 관료들의 영원한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절제 김종서의 충절

(백원철 공주대학교수)

절제는 당시 현실에 타협하지 않은 충직(忠直)으로 그의 일생을 마감했다. 다소의 곡절은 있었으나 세종, 문종등 현군을 만나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득의의 삶이었다.

곧 국록(國祿)이나 축내는 나약한 선비가 아니고 한 국가를 떠받치는 동량지재(棟梁之材)로서 진유(眞儒)의 면모를 후대에까지 보여주었다. 또한 유학에서 일컫는 “임금은 예로써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 섬긴다”는 바람직한 군신상(群臣像)을 뚜렷이 실현해 보였다.

예로부터 어린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을 군자다운 사람으로 인정하였다. 이로 볼 때 절제야말로 충직과 절의를 지킨 군자다운 사람으로 길이 추앙되어야 한다.

오늘날에 사는 나약한 현대인들에게 변함없는 귀감으로서 그 존재가 뚜렷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절제 김종서와 공주

(임선빈부장 본원 충청학연구부)

조선 초기 공주의 유력 가문이었던 김종서 집안은 계유정란이후 철저히 파괴됐다. 김종서의 맏아들인 병조참의 김승규는 계유정란 당시 김종서의 서울 집인 현장에서 죽었고 현장에서 죽지않은 김종서는 이튿날 새벽에 도성으로 들어오다가 참살당했다.

김종서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대명률」의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가 준거가 되었다. 정난이 발

節齋 金宗瑞 장군 학술 세미나



발한지 이틀이 지나 수양대군은 김종서·김승규와 같이 주형을 받은 사람들의 아버지와 자식으로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영원히 관노(官奴)에 붙이는 등 친인척 모두는 노비로 끌려가고 재산은 모두 적물했다.

이후 김종서는 공주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성종조에 편찬되고 중종조에 신증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공주목 인물조에는 김종서에 대한 기사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후의 조선시대 읍지와 지리지에서도 공주의 김종서나 그 가문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김종서의 학문적 역량이나 업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만약 김종서가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이후 공주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공주사람들은 수백년동안 공주가 배출한 참된 영웅을 잃어버리고 지냈던 것이다. 이제 이를 되찾을 때가 온 것이다. 절재 김종서가 태어나고 묻힌 공주에는 그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생가지가 있으며 그의 선영과 묘소, 묘비가 있고 김종서가 신원·복관된 후에 그를 제향하기 위해 세워졌던 요당서사 터와 숙모전이 있다. 이러한 유적지에는 충절인 김종서의 정신이 면면히 배어있다.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당 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해준)는 지난해 12월7일 공주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제1회 정기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개최된 이날 학술 심포지움에서는 향토사학가 및 문화원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5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제1주제는 향토사·지방사 연구에 대해 본원 임선빈 부장(충청학연구부), 2주제는 이강승 충남대교수(고고학·미술사), 3주제는 이필영 한남대교수(민속학), 4주제는 김균태 한남대교수(구비문학), 5주제는 황의동 충남대교수(인물·사상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충청학·충청문화의 방향설정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최됐다. 충남역사문화연구소는 앞으로 연구결과물을 연구소 간행 연구지에 수록할 계획이다.



계룡산 최정상 천황봉, 다량의 기와·토기편 수습 통일신라부터 고려·조선시대까지 계룡산 천제단(天祭壇) 가능성 커, 본연구원 지표조사

계룡산 최정상인 천황봉(天皇峰, 845.1m)에서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토기·자기편이 다량 수습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수습된 유물로 볼 때 계룡산 천황봉이 국가에서 제사를 지낸 제단처였을 가능성이 커 이 지역 인근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계룡산은 통일신라시대에는 5악(岳)중 하나로 이곳에서 중사(中祀)에 해당하는 제사를 지냈으며, 조선시대에는 명산(名山)으로 소사(小祀)에 해당해 제사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다만 조선말기 국가제사처로 인정되던 신원사내 중악단은 지난 1999년 3월에 보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매년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천황봉에서 다량의 관련 유물이 수습됨에 따라 계룡산을 비롯한 국가 제단처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유물 중에는 '天下...' 라고 쓴 기와편이 수습돼 천제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설 경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계룡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개 명문(銘文)은 유물의 제작연대나 제작자, 제작처, 수요처, 또는 제작동기 등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유적의 성격규명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문화재연구부 이 훈부장(41)은 "계룡산 정상인 천황봉에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토기 및 기와가 수습된 것은 이곳에 제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면 계룡산 천제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룡산 천황봉 지표조사는 이 지역에 대한 환경복원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유물이 수습되자,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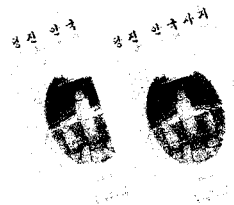


당진 안국사지 학술 세미나 「기업하기 좋은 충남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당진 안국사지 학술 세미나



본원 충남역사문화연구소와 당진군은 2001년 12월 19일 당진 안국사지 학술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안국사지가 지닌 학술사적 의의와 이의 효율적인 보존·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세미나에는 1백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는 본원 강종원연구위원의 '안국사지 조사 및 실측 결과보고'를 갖는 등 5명의 이 분야 권위자들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남도와 본연구원은 2001년 11월 14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기업하기 좋은 충남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기업의 경영애로사항과 충남지역 기업의 행정지원에 대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충남지역 관내 기업인, 관련공무원, 유관기관 근무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임준인 연구팀장(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팀장)이 「공장설립 및 입지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는 등 5명의 지역전문가의 연구발표가 있었다.